



강남구 삼성로 720 (홈페이지: www.cdspd.org)
 사무실: 02)3447-0750~1 팩스: 02)3447-0752

주 임 신 부 : 주경수(세바스티아노)
 1 보좌신부 : 서기원(바오로)
 2 보좌신부 : 김세영(파비아노)
 전 교 수 녀 : 이정미(마르첼라)
 정정순(콘체사)
 박선옥(에드워드)
 사 목 회 장 : 장병철(율리아노)
 연 령 회 장 : ☎ 010-5411-5837

주일미사	토요일 15시(초등부), 토요 저녁미사 : 19시 / 주일 : 6시, 9시, 11시(교중미사), 15시(중고등부), 17시, 19시		
평일미사	월 ~ 토 : 6시 / 화 ~ 금 : 10시 / 화 ~ 금 : 19시	고해성사	주 일 미사 전 30분
봉 성 체	매월 둘째 목요일 10시 미사 후		평 일 미사 전 15분
관면흔배	매월 둘째 토요일 17시	유아세례	출수 달 첫째 토요일 17시

소 식

금주의 성경 암송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에페 5,1)

◎ 병자 영성체: 2월 9일(목) 10시 미사 후

◎ 환송 미사

- * 2월 12일(주일) 11시 교중 미사는 주경수 세바스티아노 주임신부님과 서기원 바오로 신부님, 이 마르첼라 원장 수녀님, 정 콘체사 수녀님의 송별 미사로 봉헌되며, 교중 미사 후 본당 교우들과 국수 나눔이 있습니다.
- * 그동안 본당사목을 위해 애써주신 본당 신부님들과 수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 신부님 이동일시: 2월 14일(화) 10시 미사 후 수녀님 이동일시: 2월 16일(목) 10시 미사 후
- * 부임지

주경수 세바스티아노 주임 신부님	증전사제 연수
서기원 바오로 신부님	등촌1동 본당 부주임
이 마르첼라 원장수녀님	춘천교구 퇴계 본당
정 콘체사 수녀님	원주교구 영월 본당

◎ 환영 미사

- * 교구 사제 인사이동으로 인해 2월 14일(화)자로 김민수 이나시오 주임신부님(전: 제3 은평지구장 겸 불광동 성당 주임)과 김경영 영주바오로 1보좌신부님(전: 가톨릭 성서모임)께서 부임해 오십니다.
- * 수도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2월 16일(목)자로 김영희 비앙카 수녀님(전: 춘천교구퇴계본당)과 윤경미 오딜로 수녀님(전: 잠실 본당)께서 오십니다. 저희 본당을 위해 애쓰실 신부님과 수녀님들을 위해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 환영미사: 2월 19일(주일) 11시 교중미사

◎ 축하합니다
 * 2월 2일(목) 부제서품을 받으신 오명균 세례자요한 부제님께 영·육간 건강을 위하여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성지순례 동호회 축복장 수여미사
 * 한국 천주교 성지 111곳 순례 완주자에 대한 축복장 수여
 * 일시: 2월 10일(금) 11시 미사, 육현진 시몬 주교님 집전
 ※ 이날 10시 미사는 없습니다.
 * 문의: 송 요셉 (010-5252-1791)

◎ 3월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 환영식: 3월 5일(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중
 * 교리반: 수요일, 주일반 중 택 1 (6개월 과정)
 * 세례식: 8월 세례 예정
 * 문의: 성당 사무실

◎ 청년 겨울 피정
 * 에니어그램 프로그램으로 함께하는 청년 피정
 * 일시: 3월 4일(토)~ 5일(주일) 1박 2일
 * 장소: 시흥 성 바오로 피정의 집
 * 문의: 이 요안나(010-9678-7876)

◎ 제 31차 엠마오 태백산 눈 구경여행
 * 일시: 2월 18일(토) 오전 6시 40분 성당마당 출발
 * 준비물: 방한·방풍·방수옷, 신발, 아이젠, 스틱, 회비 4만5천원
 * 문의: 전 도미니카 (010-3297-6738)


◎ 입산부 태교모임 안내
 * 일시: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10시30분, 청소년 회관 1층
 * 문의: 강 크레센시아 (010-4661-0304)

◎ 감사합니다
 * 의정부교구 신원동 성당의 건축기금 모금에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항상 기도로 보답하겠습니다. -신원동 성당 김우성 비오 주임신부-
 * 총 모금액: 96,934,000원
 신림 약정액: 94,745,000원(385명)
 현금 봉헌액: 2,189,000원

모 임

- * 2월 5일(오늘): 바보회
- * 2월 6일(월): 춘천교구 후원미사 10시 / 성령기도회(강사: 이해봉 토마스)
- * 2월 7일(화): 여성 Co.
- * 2월 8일(수): 여성총구역회의/ 빈첸시오회/ 성소후원회
- * 2월 9일(목): 남성 Cu.
- * 2월 10일(금): 청소년분과회의/ 태교모임

성가번호 입 당: 329 예물준비: 342, 212 성 체: 344, 170, 173 파 견: 26

화 답 송 

우 리 는 이 들 에 게 는 어 둠 속 에 서 빛 이 솟 으 리 라

설날의 풍경

설날이 되면 차례미사에 참례하기 위한 독촉으로 아침시간이 촉박해진다. 세배를 마치고 간단하게라도 식사를 마쳐야 아이들이 보채지 않으므로 먹이는 일을 우선 마쳐야만 한다. 자칫하면 아이들과 얽힌 이리저리한 핑계로 차례상도 차리지 않고 미사도 소홀하여 전통방식의 명절 예절에 익숙한 사람들은 조상께 아무 예의도 보이지 않은 듯 허전해질 수 있다.

어떻게 해서라도 가족들이 일년에 두세번 미사에 간다는 것만이라도 놓치지않도록 그냥 집에 있으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나도 일상과 달리 한복을 차려입고 성당으로 갔다.

제의를 입고 신부님이 입장하시자, 7살바기 손녀가 하느님이 보고싶다고 잘 보이는 자리와 바꾸자고 하더니 얼마 지나자 연기를 왜 피우느냐고 묻는다.

“하늘로 가신 조상님들에게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마음을 보여드릴 수 없으므로 연기를 피워서 알려드리는 거야.”

7살이 된 손녀가 뒤돌아보더니 자신도 연기를 피우고 싶다고 한다.

우리도 나갈거니까 마음을 가다듬고 기다리라고 했다.

유아영세 때 엄지손가락을 교차하고 두 손을 모으는 연습을 거쳐서 기억하고 애써 십자가를 만든다.

“할머니 그러면 연기가 마음을 표현한건가요?”

“응 맞아.”

아이가 향가루를 정성껏 뿌리고 들어와서는 무엇인가 제 나뻘의 숙연한 표정을 짓길래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다시 영성체를 하러 나갔다가 수녀님이 머리에 손을 얹어 주었더니 왜 손을 얹어주느냐고 묻는다.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 해 기도를 올렸으니 하느님이 수녀님의 손을 통해 축복을 주시는거야.”

“축복이 뭐예요?”

“현진이의 마음을 알아주셨다는 사인으로 현진이에게 하느님 마음을 전해주시는 거야. 향을 피우면 연기가 아래서 위로 올라가고 복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그 느낌이 어떤건데요?”

“어떤 때는 평화롭게 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아프던 마음이 낫기도 하고, 걱정이 사라지기도 해. 용기가 나기도 하고 두려움이 줄어들기도 해. 때때로 부모님이나 형제 친구들을 사랑하고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해.”

아이는 눈을 깜빡이더니 질문을 그친다. 미사가 끝나고 나오다가 예노파 자매님을 만났다. 아이에게 환한 얼굴로 다가와서 복돈을 손에 쥐어주었다.

“현진아, 미사를 정성껏 올렸나봐. 하느님이 사람을 통해 복돈으로 현진에게 왔네?” “정말....” 아이가 표정이 환하게 바뀌더니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폴짝폴짝 뛰어 계단을 내려간다.

<문화홍보분과 위원, 1구역 5반 오정순 알бина>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봉 헌 예 물		감사헌금 (1 / 31 현재)				교무금 납부 현황	
교 무 금	22,010,000	장 마리아막달레나	50,000	유 세실리아	100,000	총 세대수	3,784
주일 봉헌금	9,755,600	곽 아가다	100,000	김 루치아	100,000	총 납부세대	440
해외원조주일 2차	6,375,400	임 시몬	100,000	-	-	지난주 납부세대	125
성소 후원금 (8건)	88,000	합계 : 450,000원				지난주 납부율(%)	11.6%